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온전한 정의)
법을 집행하는 모든 이가 공정하게 일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 제 10 차 미 동남부 성령대회

- 일시: 2019 년 9 월 1 일(주일) 1:30pm ~ 9 월 2 일(월) 5:00pm
- 장소: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주제: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 강사: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 참가비: 8 월 11 일 이전 등록시 \$30, 이후는 \$40

[잭슨빌]

- 다음주(8/11) 미사 후 사목회가 있겠습니다.
- 이번주는 지붕수리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었으며, 안전을 위해
성당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8/18 까지 성령대회 참가신청을 마감합니다. 참가비는 성당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윤미임 데레사 자매에게 문의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20 여년을 성당에서 함께 하셨던 김복만 베드로 형제님과 디나
자매님이 다음주에 애틀란타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인즈빌]

- 오늘 미사 후 친교는 학교행사 관계로 소셜홀에서 있겠습니다.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가 있겠습니다.
- 미동남부 성령대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건화 안젤라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4 분께서 참가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54	\$450	-	-	\$604
잭슨빌	\$208	\$660	\$440	-	\$1,308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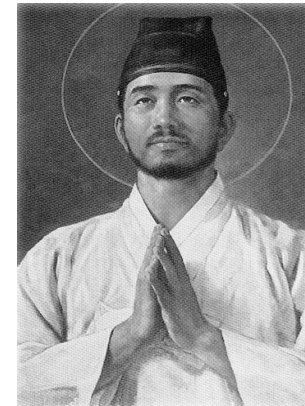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제 1 독서는 재산 추구의 허무함을 들려줍니다. 세상의 일은 실체가 없고 갑자기 사라지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헛된 것이므로, 가난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뜬구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지니는 것, 곧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참된 존엄을 이루는 모든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엄과 참된 기쁨의 원천이지만, 물질적인 재산의 추구는 세상의 많은 죄악과 불의 그리고 무질서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물질적인 재산의 추구에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곧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비유에서,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부유한 사람의 죄는 재물에도 그의 장래를 보장하는 관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신의 재물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모은 죄인입니다. 그는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고, 자신의 삶에 이기주의적 착취밖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열려 있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유지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풍요함이나 부족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 찬미하여라 >

연중 제 18 주일

[제 1 독서] 코헬렛 1,2;2,21-23

<그 모든 노고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화답송] 시편 90(87),3-4.5-6.12-13. 14 와 17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서] 콜로새서 3,1-5.9-11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13-21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8/3)	고승희 엘리사벳	이호석 레오폴드	임윤미 플로라	-
	잭슨빌 (8/4)	김상신 디나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8/10)	최건화 안젤라	백창호 그레고리오	이수미 로사	-
	잭슨빌 (8/11)	이교순 카타리나	최명희 크리스티나	이재민 토마스	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498	622	558	548
잭슨빌	21	513	172	63